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SpaceX의 블레이드 생산 발표: 빠른 전력 확보의 중요성

AI 전력 병목이 핵심부품까지 내려온 상황: 이미 전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가치 부각 기대

- SpaceX는 가스터빈의 블레이드와 베인을 직접 생산 계획 발표: 발전설비 확보 시점을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힘
- 전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AI 기업의 내재화가 발전설비 핵심부품까지 내려온 것을 시사
-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은 이미 공급이 가능한 전력(GLXY·APLD·WULF·CIFR 등)
- 우리는 연간전망과 9월 Monthly 자료를 통해 GLXY, CIFR 등을 추천했다.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부(Powered Shell)가 실적에서 부각된다면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 SpaceX가 천연가스 발전용 터빈의 블레이드와 베인을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배스트롭에 블레이드와 베인을 생산하는 주요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현재 가스터빈 공급 과정에서 블레이드와 베인이 주요 병목 중 하나라며, 직접 생산할 경우 발전설비 가동을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레이드와 베인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니다. 가스터빈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니켈계 초합금을 이용한 정밀주조와 단결정 생산기술이 필요하다. 신규 주요공장이 안정적인 생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블레이드를 직접 만들 정도로 발전설비 확보 시간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 SpaceX의 발전용 터빈 내재화 소식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전력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 병목이 길어질 수 있다. GE Vernova의 가스발전 설비 수주잔고와 생산슬롯 예약은 2026년 1분기 100GW에서 2분기 116GW로 증가했다. 회사는 연말까지 최소 125GW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간 생산능력은 단기간에 같은 속도로 늘리기 어렵다. 2026년 3분기 기준 20GW 수준이며 2028년 24GW, 2030년 30GW로 늘릴 계획이다.
- 부품업체의 실적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Howmet Aerospace는 전 세계 고온 터빈 블레이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Howmet Aerospace의 가스터빈 관련 매출 증가율은 2025년 4분기 32%, 2026년 1분기 39%, 2분기 38%를 기록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수요를 주요 성장 동인으로 설명했다. 2027년 설비투자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SpaceX가 가스터빈의 마지막 병목까지 직접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18개월을 줄이기 위해 블레이드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전력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체발전은 전력망 연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발전설비의 생산, 가스 공급, 환경허가와 건설까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기존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 확보형 데이터센터(Powered Shell)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이미 대규모 전력이 확보된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식이다. 기존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상화폐 채굴시설은 이미 토지와 전력연계, 발전설비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Galaxy Digital의 Helios는 이미 이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7월 CoreWeave에 133MW의 실제 IT 전력용량 공급을 완료해 15년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추가 260MW도 건설 중이며 CoreWeave와 계약한 전체 용량은 526MW다. Applied Digital은 Polaris Forge 1에서 175MW가 현재 가동 중이다. 5개 데이터센터에서 총 1,410MW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기본 15년 계약매출은 약 362억달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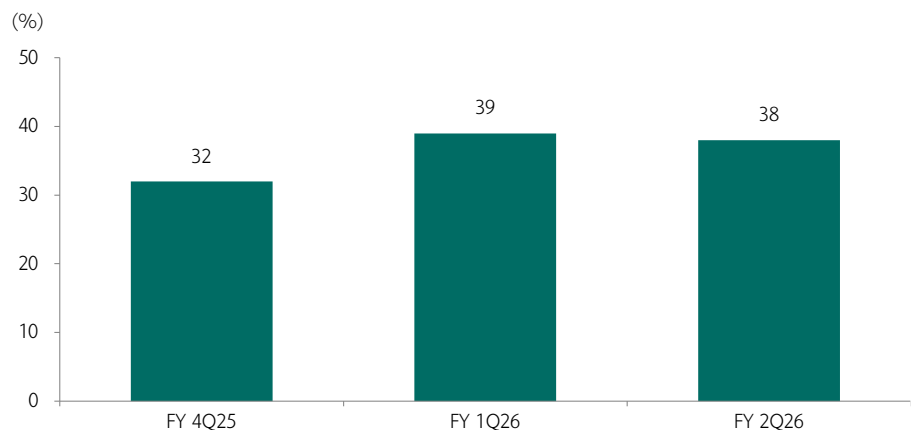
- TeraWulf는 Lake Mariner에서 102MW의 실제 임대매출이 발생하는 전력용량을 운영하고 있다. Anthropic과 켄터키 Justified 부지의 401MW, 20년 계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공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8년 초 전체 용량이 가동될 예정이다. 기본 계약기간의 예상 매출은 약 190억달러다. Cipher Digital은 Amazon과 300MW, Fluidstack·Google과 300MW 등 총 600MW(Gross)의 데이터센터 계약을 확보했다. Black Pearl에서는 2026년 8월 첫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시작해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SpaceX의 블레이드 내재화 소식에 전력기기 기업들(GE버노바, 지멘스, 히타치 등)과 블레이드 기업(Howmet Aerospace)들이 반응했지만 신규 블레이드 생산시설이 기존 업체의 품질과 생산량을 단기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발표를 핵심 부품 또는 가스터빈 기업들의 약재라는 관점보다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핵심부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표1. xAI의 블레이드, 베인 내재화 발표 후 관련주 주가 변동성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Howmet Aerospace의 가스터빈 부문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자료: Factset, Howmet Aerospace IR,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718.6	26,507.0	53,414.3	3,930.1	2,493.0
1W (%)	0.1	0.4	-0.3	-0.6	-2.2

■ S&P 500

■ 나스닥

■ 다우

■ 상해종합지수

■ 심천종합지수

주) 9월 4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8월 31일~9월 4일) 리뷰: S&P 500, 나스닥은 경계감 속 2주 연속 상승. 다우는 약세

- 미국증시 3대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혼조세 마감했다. 주간 기준 나스닥과 S&P 500은 2주 연속 올랐으나, 다우는 약세였다. 3대지수의 수익률은 각각 다우지수 -0.3%, S&P 500 +0.1%, 나스닥 종합지수 +0.4%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8% 하락했다. S&P 500 안에서 비중이 큰 기술 기업 중심의 상승을 시사한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0.1% 하락했다. 최근 높은 금리는 자금조달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형주의 부담 요인이다.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을 공습하고 있다. 8월 30일 미국이 이란의 라락섬에 있는 발사대 2곳을 타격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의 전투가 재개됐다. 이란은 공습보단 미사일과 드론으로 광범위한 보복을 단행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경제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각 4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과 거래한 튀르키예 은행과 그 자회사 2곳을 제재했다. 재무부 산하 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번 제재가 미국이 이란 정권을 연명시키는 남은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또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상승 상위섹터는 에너지(+2.3%), 정보기술(+1.1%) 등이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이 주요 모멘텀이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WTI는 9.4%, 브렌트유는 8.8% 올랐다. 정보기술은 하위 섹터 중 하드웨어(+1.3%)와 반도체(+2.3%)의 상승이 특징적이다. 호실적을 발표한 델 테크놀러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소프트웨어(-3.7%), IT 서비스(-0.7%), 통신장비(-1.9%)는 약세였다.
- 하락 상위섹터는 경기소비재(-2.1%), 소재(-1.6%), 부동산(-1.3%), 산업재(-1.1%) 등이다. 경기소비재의 약세는 경기 악화 영향은 아니다. 의류 기업 등 섹터 내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약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 더 민감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은 장기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재는 금리 상승과 금·은 가격 조정이 겹쳤다. 금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강한 고용지표로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7월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 규모가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도 부담이었다.
-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M7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XMAG)의 수익률은 각각 +0.5%, -0.3% 등이다. M7 기업 중 아마존(-3%), 마이크로소프트(-2.7%), 알파벳(-2.3%)만 하락했다(META +6.7%, NVDA +5.9%, TSLA +1.5%, AAPL +0.1% 등). 하락한 M7 기업들은 전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I나 클라우드의 수요가 약한 것은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했는데, 높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됐다. 아마존은 FTC의 광고사업 관련 소송이라는 개별 악재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이번 주(9월 7일~9월 11일) 프리뷰: CPI, 오라클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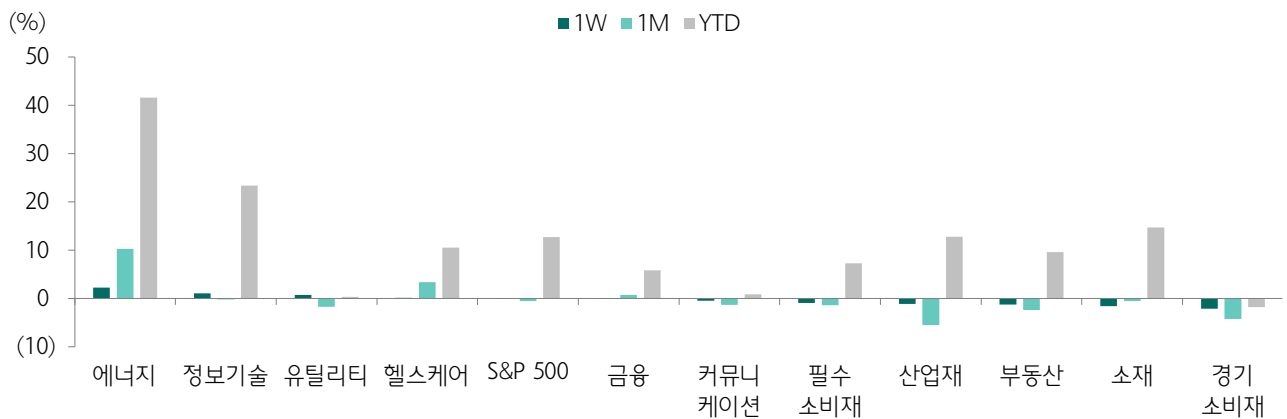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금요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할 것이다.
- 미국 현지시각 기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린다. FOMC 직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주요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지난주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9월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CME FedWatch 기준 9월 금리인상 확률은 잭슨홀 직후 58%까지 상승한 뒤 주중 49.4%까지 낮아졌으나, 강한 고용지표 발표 후 다시 58.4%로 상승했다.
- 잭슨홀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됐다. 당시 미국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베어 플래트닝이 나타났다. 이후 단기금리의 상승폭은 일부 되돌려졌지만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높은 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채 및 회사채 공급 부담 등이 장기금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지속적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워시 의장이 실제로 강한 긴축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바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바 이사는 은행 포럼에서 연준의 목표(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5년 반 동안 고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방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추세를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가가 충분히 둔화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단호하게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윌러 연준이사는 다소 완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지표들은 물가 상승 둔화의 징후를 보인다고 했다. 향후 2주 동안 발표될 지표들에서도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
- 8월 CPI 컨센서스는 전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형성돼 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3.3%로 7월 3.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핵심 CPI도 2.3%로 7월 2.5%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관세가 상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실패 관세율이 낮아진 가운데 근원 상품물가의 상승세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상반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기업들이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가격 인상보다는 비용 절감과 마진으로 흡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메모리 등 AI 관련 부품 가격 상승으로 IT 관련 상품물가는 일부 높아질 수 있다.
- 기업 실적에서는 오라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OCI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오라클은 FY26에 1.2G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고객에게 인도했고, FY27 1분기에도 약 1GW에 가까운 용량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PU 가동률도 97.5%에 달했던 만큼 신규 용량의 매출 전환과 함께 높은 OCI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시장의 관심은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규 용량의 매출 전환이 이익 증가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규모 자본지출 계획의 유지 또는 추가 상향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강한 AI 수요에 따른 투자 확대가 향후 매출과 이익 증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지표 및 이벤트로는 8일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이전치 99.8), 9일 8월 뉴욕 연방은행 1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이전치 3.6%) / MBA 30년물 모기지 금리(이전치 6.79%)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11,800 건) / 레드북 YoY(이전치 9.6%), 10일 EIA 단기 에너지 전망 / 10년물 미국채 입찰(이전치 4.683%) / OPEC 월간 보고서 / 8월 헤드라인 PPI MoM(이전치 Flat) / 8월 핵심 PPI MoM(이전치 0.2%) /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206,000건) / 8월 기존주택 매매(이전치 4,060,000 건), 11일 8월 헤드라인 CPI YoY(예상치 3.3%, 이전치 3.4%) / MoM(예상치 0.3%, 이전치 0.1%), 8월 핵심 CPI YoY(예상치 2.3%, 이전치 2.5%) / MoM(예상치 0.16%, 이전치 0.2%) / 9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4%) /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3.3%) / 9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이전치 51.5) /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이전치 51.7) 등이 있다.
- 연준 위원들은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은 8일 TTAN, 9일 AVAV, 10일 ORCL / ADBE / M, 11일 KR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9/04)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718.6	-0.4	0.1	-0.5	4.2	14.5	18.8	12.8
나스닥	미국	26,507.0	-0.3	0.4	-0.7	2.2	18.4	21.6	14.0
다우	미국	53,414.3	-0.5	-0.3	-1.2	5.2	12.4	17.4	11.1
STOXX600	유럽	649.9	0.1	-0.8	-1.6	4.4	8.6	18.3	9.7
KOSPI	한국	6,687.2	1.6	-1.5	6.8	-18.1	19.7	108.6	58.7
KOSDAQ	한국	813.5	2.9	-3.0	1.8	-18.8	-29.5	0.3	-12.1
상해종합지수	중국	3,930.1	-0.3	-0.6	-0.3	-2.4	-4.7	3.1	-1.0
심천종합지수	중국	2,493.0	-0.8	-2.2	-3.2	-9.8	-7.6	3.6	-1.5
항테크지수	홍콩	25,650.9	1.7	0.3	-0.1	2.8	-0.4	0.9	0.1
TOPIX	일본	4,103.2	0.0	-1.0	0.7	3.9	10.4	32.1	20.4
니케이 225	일본	65,020.9	1.3	-2.1	-0.9	-2.4	16.9	51.1	29.2
니프티 50	인도	23,897.7	0.1	-1.1	-2.7	2.3	-2.3	-3.4	-8.5
Vietnam	베트남	1,853.1	1.4	3.4	4.8	0.8	4.8	11.2	3.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9.0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이란 갈등 지속으로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9.4%, 8.8% 급등하며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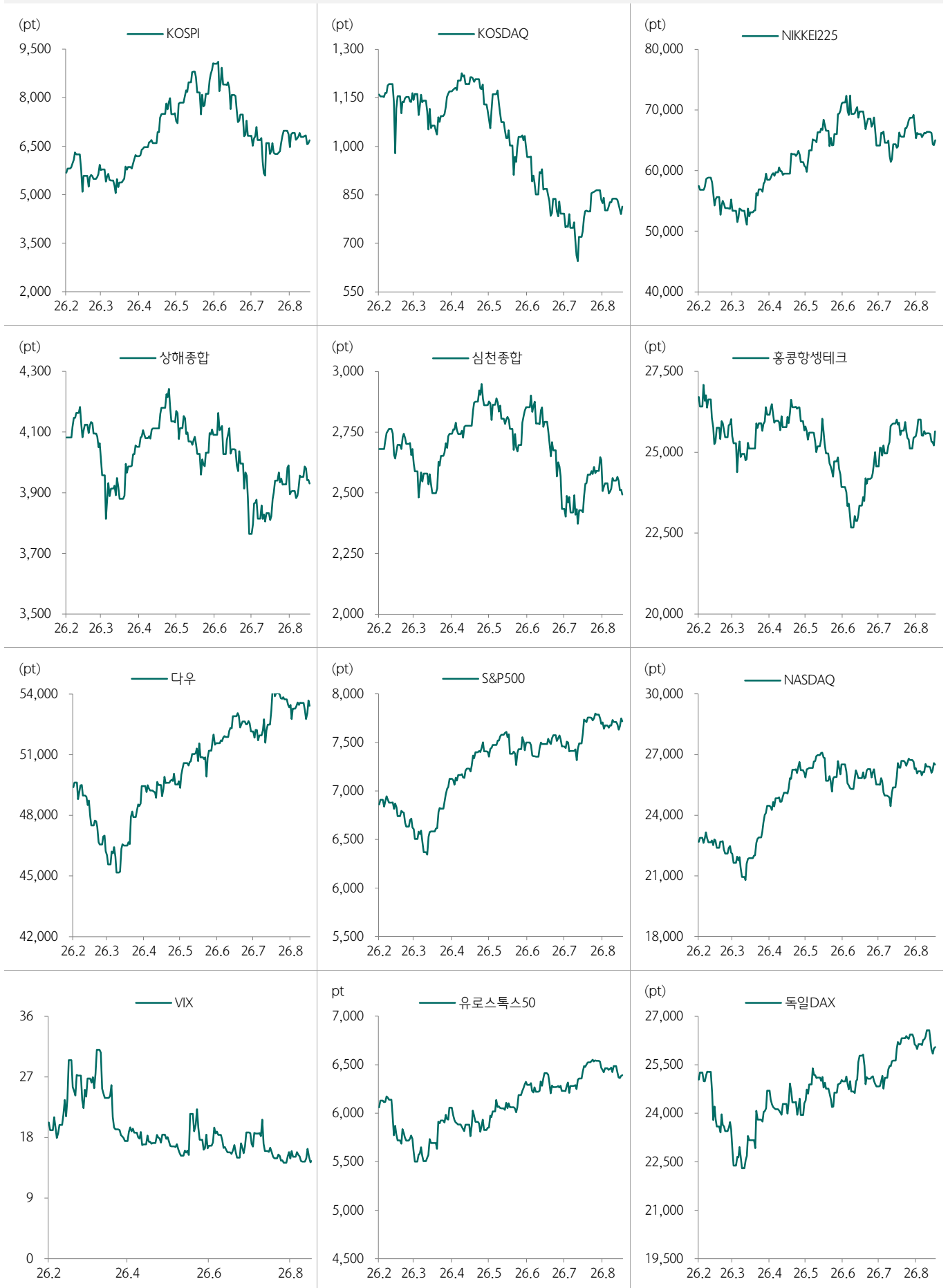
- 경기소비재: 경기 악화보다는 의류 기업 중심의 실적 부진으로 약세, 소비자 가격 민감도 상승에 따른 선별적 소비 패턴 반영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8/31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 산화제 누출로 ISS 발사 연기 스페이스X와 NASA가 드래곤 우주선 추진 시스템의 산화제 누출 문제로 크루-13 ISS 임무 발사를 연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탑승 예정이었으며 새로운 발사 목표일은 미발표. 같은 날 43억 달러 규모의 NASA 암흑물질 우주망원경 발사에는 성공
9/1	구글, 광고 캠페인 'AI Max'로 9월 자동 전환 구글이 9월 1~30일 중 캠페인 레벨 광고 확장 검색어 설정 및 자동 생성 에셋(ACA) 캠페인을 'AI Max'로 자동 전환. AI Max는 새로운 캠페인 유형이 아닌 기존 캠페인에 적용되는 최적화 레이어로, 캠페인 ID와 구조는 유지됨. 다만 3가지 신규 리포팅 지표가 추가되고 최종 URL 확장으로 인해 광고에 저장된 URL과 실제 랜딩 페이지 URL이 달라질 수 있어 데이터 연동 시 주의 필요
9/2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54.6...전월 대비 둔화, 예상치 하회 ISM, 8월 제조업 PMI가 54.6으로 전월(55.6)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55.2)를 하회했다고 발표. 8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신규주문(53.7, -3.0포인트)과 고용(51.2, -1.6포인트)이 둔화. 가격 지수는 71.1로 전월과 동일한 높은 수준 유지. ISM은 "5개 하위 지수 중 전월 대비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공급업체 납품지수 하나뿐으로 공급망의 지속적 둔화를 나타낸다"고 평가
9/3	美 법원, 구글 광고 거래소 AdX 매각 명령 기각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구글의 광고 거래소 AdX 매각을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 강제 매각 대신 행위 시정 방안을 수용하는 판결로, 구글은 광고 사업 분할 위기를 넘김. 앞서 판사는 구글이 발행인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매각 명령까지는 나아가지 않음. 이번 판결은 FTC의 메타 인스타그램 매각 청구 기각, 구글 크롬 매각 요구 기각에 이어 세 번째로 빅테크 분할 시도가 법정에서 좌절된 사례
9/4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 55.4 ISM, 8월 서비스업 PMI가 55.4로 전월(54.1)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54.3)를 웃돌았다고 발표. 기업활동(61.7)과 신규주문(60.9)이 각각 2.6포인트, 3.7포인트 급등하며 성장을 주도한 반면 고용 지수는 47.8로 2개월 연속 위축. 가격 지수는 72.6으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비용 압력이 지속
9/4	오픈AI, GPT-6 아스트라 공개 오픈AI가 3일 'GPT-6 아스트라'를 출시하며 그레고 브록먼 사장이 "AGI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사실상 AGI 달성을 선언. 브록먼 사장은 "미래에 돌이켜보면 AGI가 이 모델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힘. 오픈AI는 아스트라를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정렬된 모델"이자 "전문 업무에서의 질적 도약"이라고 표현
9/4	연준 월러 이사 "최근 물가 흐름 고무적...진전 지속 시 금리 동결 지지"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근원 PCE MoM +0.2%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금만 가속해도 더 긴축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 최근 근원 물가 상승분의 절반가량이 추정치인 비시장 서비스에 비롯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근원 PCE는 MoM +0.12%에 그친다고 분석
9/4	엔비디아, 10월 RTX 스파크 출시해 로컬 AI 생태계 확대 엔비디아가 IFA 2026에서 RTX 블랙웰 GPU, 128GB 통합 메모리, 20코어 그레이스 CPU를 탑재한 새 윈도우 PC 플랫폼 'RTX 스파크'를 10월 출시한다고 발표. 레노버, 에이서가 첫 제품을 공개했으며 소형 데스크톱부터 슬림 노트북까지 다양한 제품에 적용 예정. 로컬 네트워크 내 여러 PC를 하나의 AI 연산 자원으로 묶는 오픈소스 '페어(PAIR)'도 공개해 클라우드 없이도 로컬 AI 성능 확장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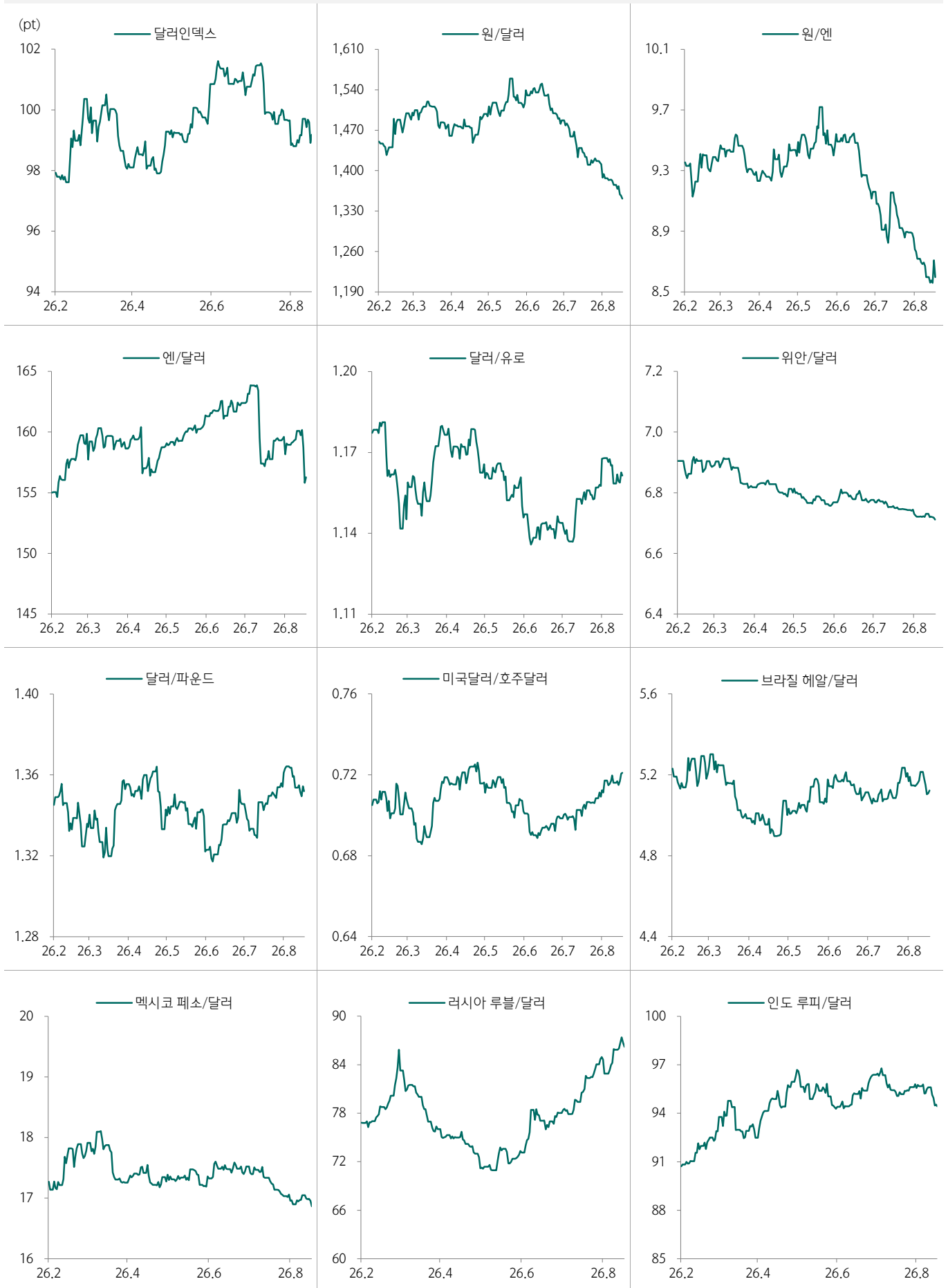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9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PANW MDT CRDO MDB DELL GTLB	AVGO SNOW HPE NTAP	CIEN LULU ZS IOT PL CPB DOCU	
7	8	9	10	11
	TTAN	AVAV	ORCL ADBE M	KR
14	15	16	17	18
ORCL			CCL DRI LEN FDS	
21	22	23	24	25
		GIS	COST NKE JBL	
28	29	30		
	MU AZO KMX	CTAS PAYX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9/7(월)	미국 휴장 (근로자의 날)
9/8(화)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 (이전 11.80K)
9/9(수)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전 3.6%)
9/10(목)	8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0.2%) 8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0.0%) 8월 기존주택판매 (이전 4.06M)
9/11(금)	8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1%)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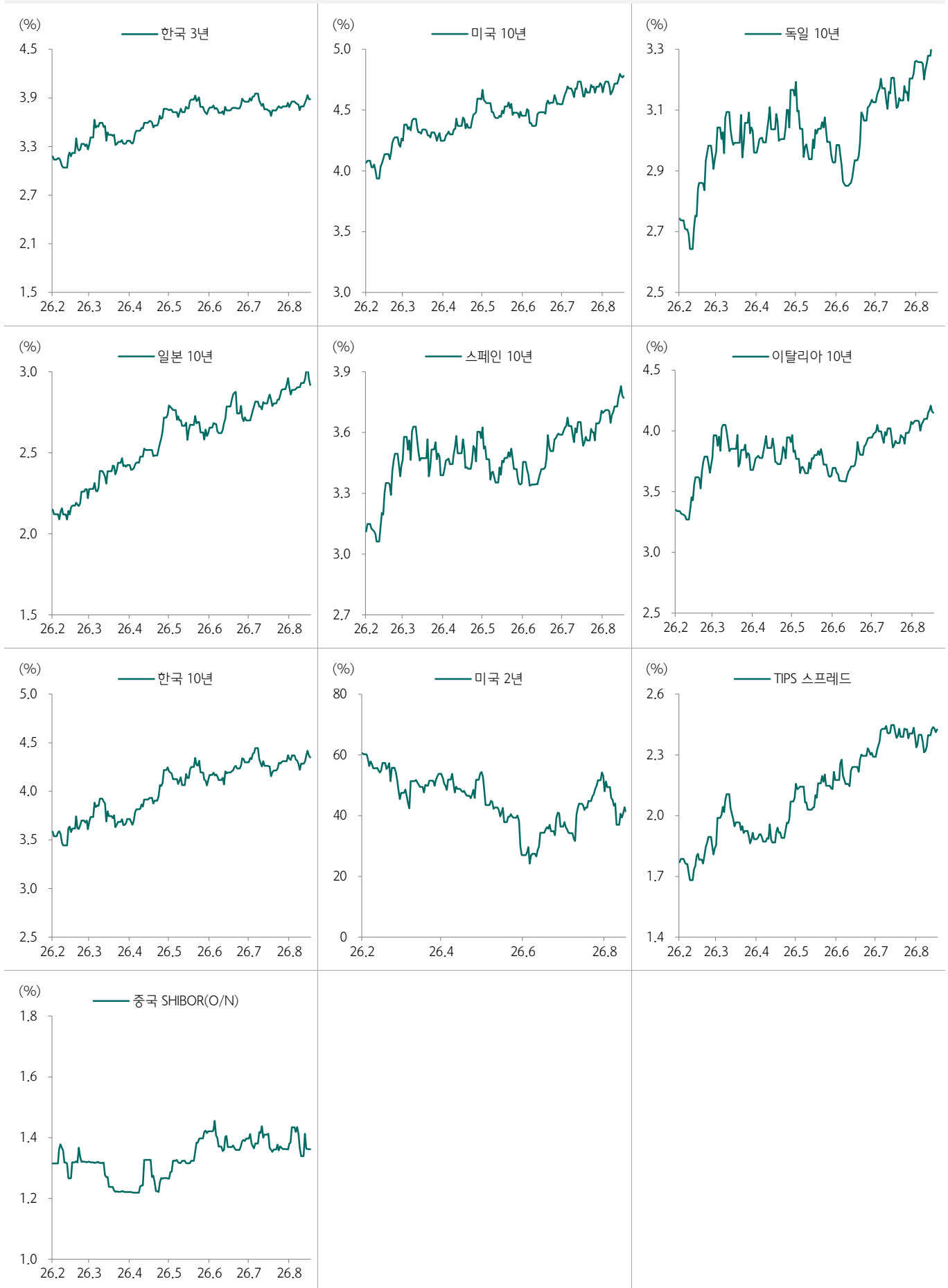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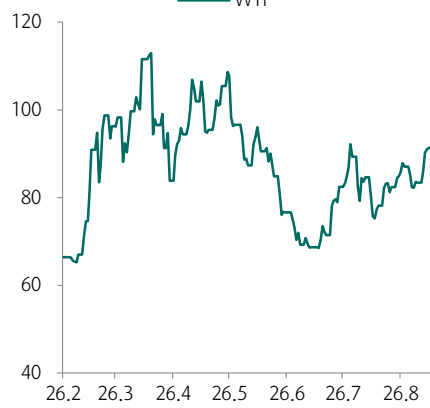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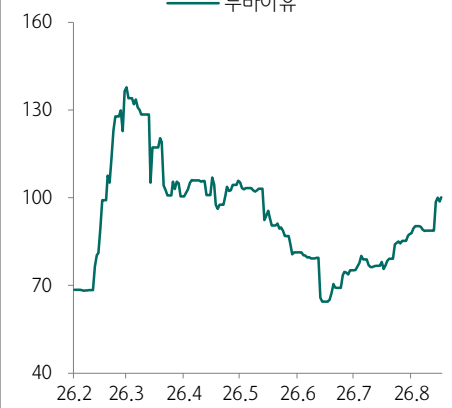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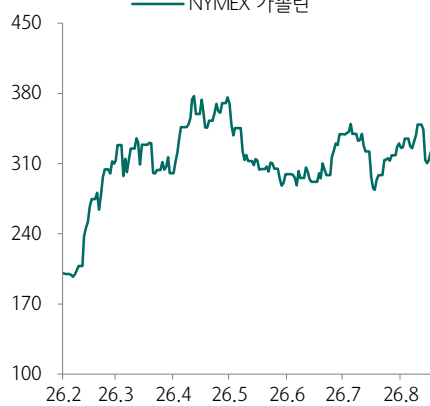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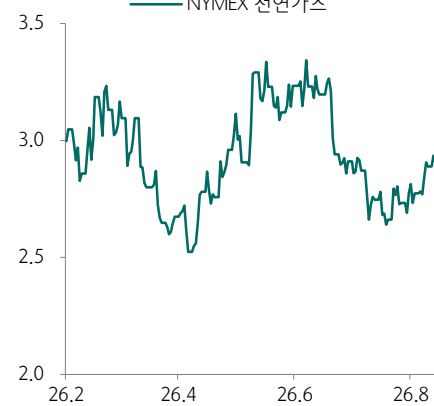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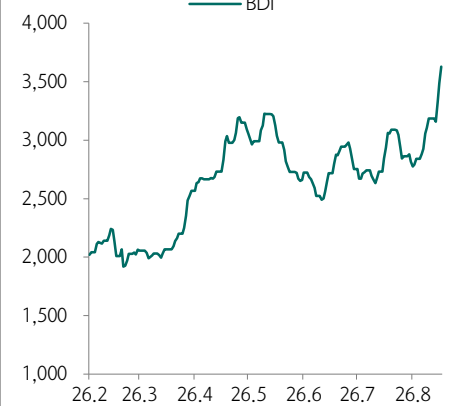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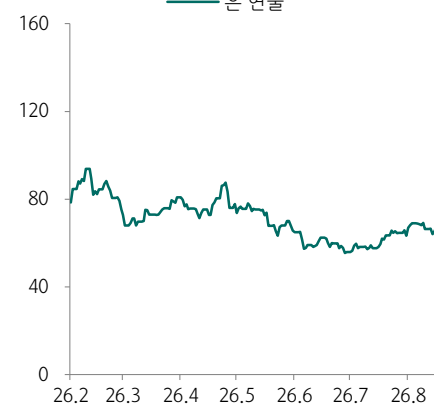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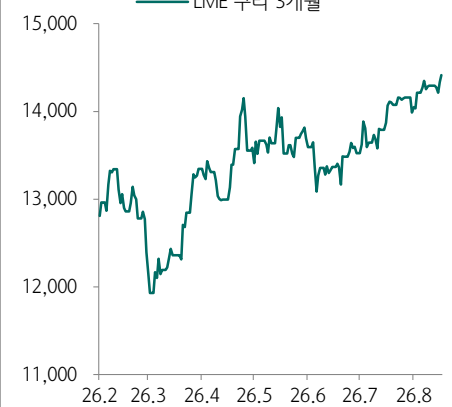
(달러/온스)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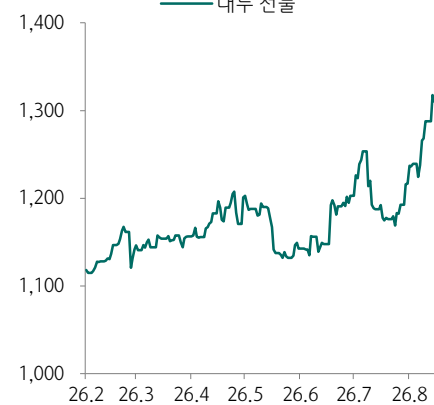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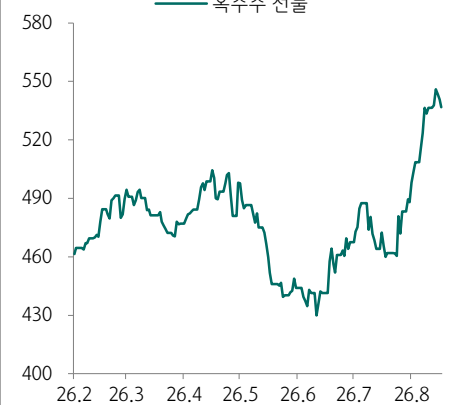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